

디지털전자산업 동향



우상제
전자연구소
그룹장/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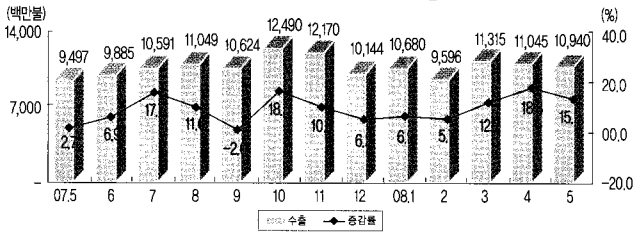
■ 수출입 전망

'08.5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2% 증가한 109.4억불, 수입은 17.7% 증가한 61.4억불로, 무역수지는 48.1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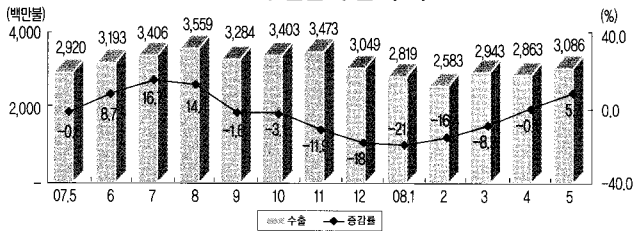
수출은 휴대폰(47.9%)이 3개월 연속 50% 전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디지털전자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전(14.5%), 전자부품(12.1%)도 모두 증가하였다.

반도체(5.7%)는 메모리반도체(3.6%)가 6개월 만에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고, 패널(18.2%)도 증가를 이어갔다.

디지털전자산업 수출 현황



반도체 월별 수출 추이



■ 대외 시장 여건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유로화,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출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 특히, 가전, 휴대폰 등 글로벌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은 가격경쟁이 심한 북미·유럽지역에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고유가 여파가 원자재가격에까지 미치며 가전의 주원료인 강철, 플라스틱 등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 수출전망

휴대폰은 모토로라의 실적부진 지속, 유럽경기 둔화로 노키아와 소니에릭슨의 성장세 약화 등으로 삼성과 LG의 실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가전은 디지털TV 호조가 가전 수출증가 주도, 디지털TV의 세계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패널확보에 유리한 국산 디지털TV 수출은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메모리반도체는 공급안정, 수요증가로 실적개선을 기대하며, 디스플레이는 세계시장 수요확대, 기술우위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휴대폰은 수출 19.2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47.9% 증가, 연초부터 두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개월은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디지털전자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연월	07.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수출	1,299	1,524	1,620	1,417	1,491	2,282	2,177	1,348	1,945	1,613	2,039	1,992	1,922
수출	증감률	-8.8	10.0	35.8	-1.1	-0.1	49.9	27.7	21.2	31.6	22.8	50.3	48.8	47.9

반도체는 수출 30.9억불로 전년 동월대비 5.7% 증가, 메모리반도체(3.6%)가 감소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로 전환되면서 반도체는 9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연월	07.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1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수출	2,920	3,193	3,406	3,559	3,284	3,403	3,473	3,049	2,819	2,583	2,943	2,863	3,086
수출	증감률	-0.6	8.7	16.7	14.4	-1.6	-3.8	-11.9	-18.2	-21.6	-16.4	-8.2	-0.1	5.7

부문별 수출입 동향

휴대폰(47.9%)이 3개월 연속 50%전후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부품(20.2%)도 두 자릿수 증가가 이어가는 등 무선통신기기가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구분	주요 증가국	주요 감소국
수출	중국(2.1억불, 30.1%), 멕시코(1.5억불, 63.3%), 호주(0.4억불, 99.3%), 브라질(0.3억불, 27.2%), 러시아(0.3억불, 132.3%) 등	폴란드(0.4억불, -1.1%), 독일(0.2억불, 15.6%), 슬로바키아(0.2억불, -38.6%) 등
수입	중국(2.3억불, 18.7%), 인도네시아(0.3억불, 193.2%), 태국(0.2억불, 45.7%) 등	미국(0.2억불, -12.7%), 말레이시아(5백만불, -10.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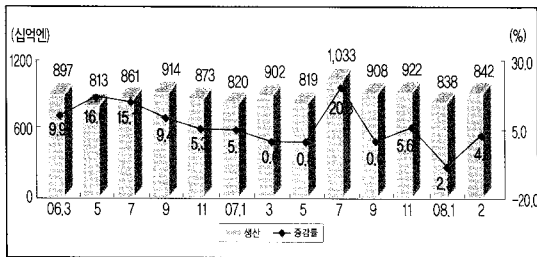
일본 IT 부품 · 소재 산업 시장 동향

■ 생산 동향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8천4백억엔을 기록하였다.

반도체소자(11.3%)가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디스플레이(9.4%), 기구부품(9.3%), PCB(-1.9%) 순임. 반면에, 수동부품(-2.3%), 변환부품(-1.6%), 기타부품(-0.9%)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월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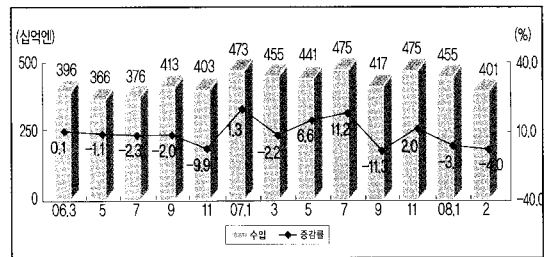


■ 수입 동향

2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4천1십억엔을 기록하였다.

변환부품(-19.7%)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기타부품(-18.6%), 기구부품(-8.0%), 기기부분품(-4.4%), 반도체소자(-3.5%), 수동부품(-0.1%) 순임. 반면에, PCB(0.2%), 디스플레이(122.2%)은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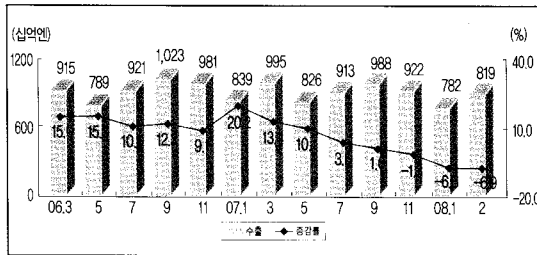


■ 수출 동향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한 8천2백억엔을 기록하였다.

변환부품(7.9%)이 가장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PCB(-7.2%), 수동부품(-7.0%), 디스플레이(-6.9%) 순임. 반면에, 반도체소자(1.2%), 기기부분품(0.4%), 기구부품(4.4%), 기타부품(1.8%)은 플러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월별 수출 추이



■ 내수 동향

2월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24.1% 증가한 4천3백억엔을 기록하였다.

IC(33.9%)가 가장 큰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반도체소자(30.3%), 기구부품(13.1%), 디스플레이(10.7%), 수동부품(4.9%) PCB(1.0%) 순임. 반면에, 변환부품(-22.6%), 기타부품(-2.7%)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했다.

일본 IT 부품 · 소재 내수 추이

